

보성 일립산서 연분홍빛 철쭉 세상 만나보세요

내달 4~6일 '철쭉문화행사' 개최... '전국 최대 군락지' 아름다운 경관 연출

보성군은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 최대 철쭉군락지인 일립산에서 제20회 일립산 철쭉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립산은 보성 웅치면에 위치한 산이다. 산이 깊어 숲속에 들어가면 해를 볼 수 없다고 해 일립산이라 이름 지어졌다. 호남정맥이 남해로 들어가 직전 솟은 해발 667m의 명산으로, 5월 초 150ha의 연분홍빛 철쭉과 드넓은 녹차밭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일립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보성군의 발전과 군민 화합·변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례를 시작으로 숲속음악회·산림문화사 진전시·목공놀이·편백 잘라가

기·로컬푸드 판매코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철쭉꽃은 기후가 따뜻하고 기상 조건이 양호해 예년보다 크고 빛깔이 좋을 것"이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전국 최대 철쭉군락지의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보성다향대축제에 비롯해 보성군민의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립산철쭉문화행사, 녹차마라톤대회, 전국요트대회,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보성=장국도 기자

이승옥 압화작가, 두 번째 개인 전시회 개최

내달 31일까지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1층 갤러리서



구례 이승옥 압화 작가는 압화 작가로서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1층 바이라한 갤러리에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번째 개인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꽃으로 그리는 그림 압화 초대전"으로 압화 작품 30여 점이 다채롭게 전시된다.

꽃으로 그려내는 산수화, 디자인, 정물, 장식 등 초예 이승옥 작가의 다채로운 전시작품에는 지리산의 생생한 자연이 담겨 있고 형형색색의 잎과 꽃, 줄기 등이 물감이 되어 화쪽으로 옮겨져 우리의 삶과 행복, 사랑을 담고 있다.

압화(押花, Press of Flower)는 우리말로 '꽃누름', '꽃누르미', '누름꽃' 등으로 부르며, 꽃과 잎, 줄기 등 식물물건을 건조한 뒤 이를 활용하여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형예술로 전통공예로 분류된다.

이 작가는 "생애 두 번째 개인 전시회를 갖게되어 매우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다채로운 압화 작품을 접하고 문화적 치유와 힐링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과 강의 등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압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겠다"고 전시소감을 말했다.

이 작가는 지난 해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주최로 개최된 '2023 전남여성박물관 공모전 女新(여신) 나르샤에 당선된 초예(草藝) 이승옥 압화(押花) 작가의 개인전으로 '꽃의 또 다른 부활! 압화전-꽃으로 그리는 꽃누름 이야기 展'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유일한 압화 박물관이 있는 구례군은 매년 대한민국압화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최고상인 대통령상이다. 올해는 제23회 대한민국의 압화대전을 성황리 개최했다.

/구례=오영범 기자

순천 송광면·삼산동 주민자치회 도·농상생 협력 협약 체결



순천시 송광면 주민자치회와 삼산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농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삼산동·송광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류로 농산물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가정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양측 모두에 선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국 송광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상생 협력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범서 삼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삼산동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 유럽 수출개척단, 프랑스서 500만 불 수출협약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진출 계기

공영민 고흥군수가 이끄는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프랑스 출장을 통해 총 500만 불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맺는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은 프랑스에서 ▲주리엔코 RIZ ET CO SAS 200만 불 ▲쵸에이스푸드(ACE FOOD SAS) 300만 불 수출협약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aitres Cuisiniers de France) 고흥 농수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성과는 ▲고흥유자 유자곡물당, 고흥유를 중심으로 한 고흥농수산물 수출 ▲고흥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다각적인 수출 판로 개척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명인 요리사를 활용한 고흥농수산물의 유럽 고급 식재료 시장에 고부가가치



고흥군,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고흥농수산물 유럽 시장 공동 마케팅 협약

치 상품으로 진출 및 글로벌 상품 브랜드 계기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과 고급 식재료 시장 진출에 노력해 세계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한편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직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올해 7월에 열릴 예정인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맞춰 유자에이드, 유자마말레이드, 유자곡물당 등 고흥유자 상품을 오는 5월 중 상차 예정이다"며 "고품질 고흥유자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프랑스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과 고흥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 '시민과의 대화' 23일부터 시작

오는 30일까지 12개 읍면동 순차적 진행

광양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정인화 광양시장이 12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2024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시장이 세 번째로 갖는 시민과의 대화로 일반주민,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원로,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각층이 참석할 가운데 진행된다.

대화일정은 ▲금호동(4.23.화) 10:00 주민자치센터 ▲골약동(4.23.화) 14:00 골약동사무소 ▲진상면(4.24.수) 10:00 백학문화복지센터 ▲다압면(4.24.수) 14:00 다압면 정담센터 ▲옥곡면(4.25.목) 10:00 옥곡면사무소 ▲중마동(4.25.목) 15:30 주민자치센터 ▲옥룡면(4.26.금) 10:00 교육문화복지센터 ▲봉강면(4.26.금) 14:00 봉강면사무소 ▲태인동(4.29.일) 10:00 주민자치센터 ▲진월면(4.29.일) 14:00 달빛나루종합복지센터 ▲광양읍(4.30.화) 10:00 광양읍사무소 ▲광영동(4.30.화) 14:00 광영동사무소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8기 시장 성과와 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읍면동 현안 사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100분 가량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생한 대화의 현장은 광양시청 TV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양, 법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며,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신청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의 종업원 수와 사용하는 건축물의 비율로 인한 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는 25일 전에 신고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천재지변 등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가 차감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곡성,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복합 문화공간으로 탄생

동화체험실·어린이 프로그램실 등 구축

곡성군은 지난 12일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군의원, 교육계 인사들 비롯해 주민과 어린이 500여 명이 참석해 곡성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곡성읍 곡성로 903번지에 위치한 1,460㎡ 규모의 도서관으로, 어린이도서관, 풀잡

동화체험실, 어린이 프로그램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관식에서는 예산어린이집 어린이 10명의 귀여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곡성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경과보고와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시설 관람, 테이블 커피팅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부대행사로 도서관 곳곳

에서 그림책 미술과 샌드아트 공연, 실감형 독서체험, 북구경,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 400여 명이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을 어린이는 물론 주민 모두가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홍병백 기자

순천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19일~20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순천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표위원인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과 양동진, 이세은 의원 비롯해 회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동수 전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호 회계사, 김상철 세무사, 순천대학교 박병희 교수, 전병선, 김점태, 유희성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20일간 순천시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사하여 지난해 순천시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위촉장을 전달한 정병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만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농업인들 애로사항 청취 민원 해결 '소통의 시간' 가져

광양시는 봉강향살수련원에서 농정감담회를 열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사)한국농협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 청년후계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미생물을 활용한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인단체 간담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이 주재한 농정감담회에서는 ▲퇴비사 지원사업 신설 ▲농기계 임대사업장 근무시간 연장 및 소형 농기계 지원 확대 ▲농어촌 인력 부족 해결 ▲농업인,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현장 실습비 지원 ▲소포장재 규격화 및 가격 조정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자리가 농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농민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반려제품 펫팸족 겨냥 상품 '눈길'

순천 개비자나무 소재 활용 맹당이 멀티밤·삼푸 출시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에서 탄생한 반려동물 제품이 '펫팸(Pet-Family)족'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 출연기관인 (재)순천바이오웰스케어연구센터는 스마트팜 연계 기술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어려운 개비자나무의 목표과 잎 생산에 성공했으며, 개비자나무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3종 보습 멀티밤, 트리플케어 삼푸를 만들었다.

보성, 동운천 '꽃창포 1만1000본' 식재

생태하천길 수질개선

보성군은 지난 12일 주민들의 산책길로 잘 알려진 동운천 생태하천길의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꽃창포 1만1000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꽃창포는 중금속, 영양염류 흡수와 악취제거 능력이 뛰어나 수질정화식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생식물로 이날 식재에는 보성군청년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지역단체가 동참했다.

이번 꽃창포 식재 행사에 함께한 보성군청년협의회는 무료 차 나눔 행사를 진행했으며, 꽃창포 식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보성군청년협의회 임태욱 회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노력이 동운천의 건강성 회복과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장국도 기자